

# 자신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들 -잠언-

잠언 1:1-6, 골로새서 2:1-3

정운돈 목사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 악한 존재였는데,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둬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에 성공함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며, 문화 경제 정치를 개혁하는 RUTC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셨으니, 선교에서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레마를 발견케 하시고, 말씀을 나의 삶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꿈과 소망, 기도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서론 : 개혁의 의미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다. 세월이 지나면 본질이 퇴색되어간다. 초대교회 이후 천여 년이 지나니까 복음 메시지가 퇴색되고 종교로 변해 버렸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의 의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고행으로 바뀌어 버렸다. 종교화된 것이다. 지금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심지어 교황무오설을 믿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아예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수준까지 되어 버렸다. 마리아가 지금도 천국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웃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저 이단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 결국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종교로 타락해 버린 교회를 보고 원래 모습으로(form) 돌아가자(re)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reformation, 개혁이다.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안 그러면 천주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된다. 자꾸 종교로 간다. 예식을 한다. 가운을 입고 성찬을 하는데,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어져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내용을 잃어버린 형식은 가장 무서운 것이다. 날마다 복음으로 자신을 갱신하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지혜, 성경적 지식이 없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판단력이 상실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잠언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단들이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고집을 피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만 붙잡으시기 바란다.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 나머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야 한다. 내 관점, 내 문화, 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성령인도다.

## 1. 잠언에 대한 이해

### (1) 잠언의 저자들

잠언은 구약의 20번째 책으로,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잠24:23을 통해 미투어볼 때, 신앙생활을 잘 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편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들어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하라. 25:1부터는 후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이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며, 31장은 르우엘 왕의 어머니가 르우엘 왕을 훈계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을 두고 후대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편집하여, 잠언이 만들어진 것이다. 31장에 보면 왕이 독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정원이 독한 술을 마시지 않나. 국가 지도자, 회사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가 독주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지혜를 말한다.

### (2) 잠언의 기록 목적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다. 잠1:3-4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마약, 도박 같은 많은 중독이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 돈이면 다다 하는 이야기만 들었지, 잠언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성장한다. 그러면 서 주변을 보면 도박, 마약, 술 중독자들이 가득하다. 그러니 닢아갈 수밖에 없

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결국 의인이 되고,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 된다. 잠1:5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최고의 지략을 나는 가지고 있다. 우리 부인을 포함한 여러분은 나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나는 절대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웃음) 싸우려고 하니까 지는 것이다. 고집을 피우니까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란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인생은 답답하게 되고 자살하고 싶게 된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빛과 지혜, 그리스도의 진리로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란다(요8:32).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은 왜 잠언을 지었는가? 내가 볼 때 가장 잘못된 소문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나는 성경을 보면 불수록 솔로몬이 어리석어 보였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한 솔로몬이 후대에게 교훈을 전하는 것이 잠언의 내용이다. 실수 많이 한 사람이 할 말이 많지 않나? “내가 해 봤더니 너무 안 좋더라.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라.”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두고 솔로몬은 회개했고 반성했기에 할 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고집 피우지 말고, 잘못된 진실하게 회개하여, 날마다 갱신하고 성장함으로 새 것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유대인들은 왜 잠언을 편집했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후대들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 것이다. 후대에게 우리는 지혜도, 전문성도, 물질도 마음껏 남기고 가야 한다. 먹고 사는 것 고민을 버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말이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배를 타고 가는 장사꾼들이 대화를 하는데,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 중에 유대인 한 명은 자기에게 보물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의 집이 다 떠내려가 버렸다. 그래서 다 낙심해 있는데 유대인은 태연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자기 보물은 머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지식과 기술이었다. 유대인들은 과연 중세 때부터 이미 금융 시장을 장악해서 지금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비결이 무엇인가? 과학과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는데도,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능력이다.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란다.

### (3) 잠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축복

그러면 잠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축복이 무엇이었겠는가? 나는 잠언을 읽으면서 체질과 성격이 바뀌었던 체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태어났다. 고아들은 밖에서 태어나는데, 나는 고아원에서 태어났다. 자라 보니까 형들, 친구들이 다 고아들인데, 이 형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악бар리가 되어 있었다. 이를 악물고 싸우고, 죽인다고 하고 그랬다. 그런데 자라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사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화가 나서 유리창 두 장을 깨 버렸었던 사람이다. (웃음) 중학생 때까지 말보다 주먹이 앞서 나갔었다. 그래서 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늘 들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분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다. 내가 자존심이 강하지 않나. 그래서 분을 내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다. 성경을 보니 아버와 어머니의 훈계를 떨치지 말라고 했다. 나는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처입는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감사함과 아멘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이것이 축복으로 다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서 천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을 아직까지 못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해도 나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웃음)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25시를 넘어서, 평생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잠언 안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체질로 만드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도 체질이 되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체질로 나와 버린다. 문제가 오는데 항상 기뻐하게 되어 버린다. 이게 체질이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처를 주는 말이 되면 결국 자신에게 악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조인도 하지 마라. 기다려 줘라.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면 그분이 변화된다. 한국 사람은 특히 감정 상하면 이론도 논리도 다 필요없지 않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혜롭지 않으면 안 보인다.

## 2. 잠언의 내용

### (1) 지혜와 지식의 근본

잠1:7을 보라. ‘어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다. 잠언은 어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슨

공부를 하겠는가. 음악을 누가 만들었는가. 예술을 누가 만들었는가. 색의 조화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다. 아름다운 인체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창조가 되겠는가.

#### (2) 훈계의 중요성

둘째로, 훈계에 대한 교훈을 성경은 중요하게 밝히고 있다. 잠1:8은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다.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나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여서 생각했다.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되지도 않는 법을 떠나지 말라.” (웃음) 부모님의 실수, 부모님의 잔소리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잠6:23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직장생활을 할 때 명령이 나온다. 어른들이 명령을 할 때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고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따라가면 나중에 깨달아지는데, 일단 거부부터 한다.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니까 그 뒤에 담겨 있는 응답을 못 받는 것이다. 명령을 등불로 생각하지 않으면 5년을, 10년을 날려 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령을 순종해서 따라가 보라. 많은 것을 배우고 쉽게 얻게 될 것이다. “법은 빛이요.” 법을 따라야 작품이 나온다.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글이라.” 이것을 싫어하면 멸망의 길, 더러운 길,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 훈계는 듣기 싫은 것일 때가 많은데, 성경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다. 이것을 붙잡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 (3) 음란에 대한 경고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했다. 잠2:16에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 부분이 사단의 큰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잠6:26에는,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라.” 나는 이 구절만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로. 음란한 여인 되지 말고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바란다. 아름답고 깨끗한,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자가 되라. 마리아같은, 에스더같은 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란다.

#### (4) 술에 대한 경고

독주와 포도주에 대한 경고가 있다. 잠20:1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내 제자인 목포의 조영찬 목사는 채수할 때 내가 서울에서 데리고 살았었다. 돈 많이 들었다. (웃음)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우리 옆에 딱 오는 것이다. “야, 성경에 뭐 적혀있어!”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런데 조영찬 목사가 이 구절을 읽어준 것이다. “독주는 사람을 떠들게 하는 것이라는데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웃음) 다른 말을 했으면 싸웠을 텐데 말이다. 잠23:29-35에 보면 알콜중독자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알콜중독자를 만나서 강의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나는 설명하는데, 전부 평강히 공감한다.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전부 남 탓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전부 상처가 많다.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란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폭탄주 이야기 아닌가? (웃음) 지금 미묘하게 웃는 사람이 있다. (웃음) 24시간 알콜중독자는 구하는 것이 다 술이다. 사는 목적도, 결혼식 가는 것도 장례식 가는 것도 등산하는 것도 공연하는 것도 관람하는 것도 목적이 다 술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적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쏘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삼촌이 하는 제주 정신요양원에는 부랑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술이 들어가면 거둡니다. (웃음)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 온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것이다. 자기 눈에 다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건다. 맞아도 안 아프게 느껴지니까.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껌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알콜중독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복을 없이 살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이렇게 되어 버린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은가? 여러분, 10년, 20년, 예배드리지 않고 생활해 보라.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이런 중독자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멀리 볼 수 있어야 한다. 멀리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지혜다. 지혜 중의 지혜가 미래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가장 똑똑한 자들이 하는 일이 미래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미래를 보는 눈이 최고 지식, 최고 지혜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나. 성령충만하면 세상이 모르는 것이 보일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모했다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었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란다.

#### (5)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훈계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다. 잠6:9을 보라. 잠언은 잠을 싫어한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을 많이 자지 말라는 것이다. 잠19:15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졸일 것이니라.” 잠20:13에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러면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잠10:4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많이 쓰는 만큼 공부 잘 하게 된다. 손이 부지런해야 부하게 된다. 잠12:27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랑하지 아니 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13:4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26:14에, “문짝이 들쭉꾸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지 않는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한 것이다. 자기 지식, 손자, 민족까지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바란다.

#### (6) 경영에 대한 교훈

내가 소중하게 붙잡는 메시지 중 하나가 경영에 대한 것이다. 잠15:22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나는 잠언 말씀을 청소년 때 읽으면서 체질이 된 것이 이것이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면 의논을 하려고 한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찢러본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해 보면 지혜가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 바보같은 말이라도 일단 내가 해 두면, 거기에서 의논이 나오고 지혜가 나온다. 단, 중심없이 의논하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을 붙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 결론 :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결론을 내린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많은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1)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기만 해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지식, 배움 아닌가? 계속 배우려고 해야 한다. 나보다 더 잘 하는 점이 없는지 자주 보고 배워야 한다. 배우려면 아집이 없어야 한다. 겸손히 배워야 한다. 또 쫓아가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10년, 20년 간 깨달은 것을 우리는 1주일 만에 배울 수도 있다. 잠1~8장은 지혜와 명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 후에야 구체적인 지혜의 내용들이 나온다. 우리는 먼저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2)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참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복음과 말씀 속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이 담겨져 있음을 믿을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나는 대학사역 때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다. 이분들이 지식은 충만하지만 지혜가 없다. 그러니 자신조차 바꾸지 못한다. 지식만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지혜를 얻게 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참된 지식,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3) 셋째, 성령충만할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기도하고 묵 쉬는 사람이 성령충만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다가 답을 찾는 사람이다.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이면계약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때 성령충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기게 된다. 참사랑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하니까, 무엇인가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은 확신과 행복이 이면계약 속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이면계약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실현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에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